

건강하게 사는 약속 인하대병원이 이루어갑니다

# 인하대 병원

[www.inha.com](http://www.inha.com)

2008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인하중양의료원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취임

의학정보 청신경 초종의 진단과 치료

스페셜 컬럼 단일성 성체줄기세포 분리기술 특허 획득

전공의 24시 '영상의학과' 뭐하는 곳이지?

03·04

2008 Mar·Apr Vol.68



03	격려사 / 축사	인하학원 이사장 / 인하대학교 총장
05	취임사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인하중앙의료원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08	의학정보	청신경 초종의 진단과 치료
12	건강책갈피	활기찬 봄을 만끽하기 위한 준비 '춘곤증'
14	영양정보	더 졸린 커피보다 녹차와 봄나물로 확 '깡다'
16	스페셜 컬럼	단일성 성체줄기세포 분리기술 특허 획득
18	교육후기	건강도 챙기고 여가도 즐기는 의료관광시대
20	글이 머무는 풍경	오로지 두 발로 올라서는 땀방울의 행복 정년퇴임을 맞으며_ 새로운 운명의 수레바퀴로 남은 여정을 새 출발합니다!
23	전공의 24시	'영상의학과' 뭐하는 곳이지?
24	감사의 편지	아름다운 인연이 전하는 감사의 글
26	특특진료상담	급성신우신염의 발병원인 외
27	특특약물상담	입 마름, 현기증 증상 있어, 중단할 때도 전문의와 상의해야

**Contents**



08



16



18



20

28	금융정보	중국 펀드 어떻게 하지?
30	동문/개원의 탐방	논현사랑내과 / 논현메디칼정형외과
31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32	알립니다	인사동정, 발전기금 건강교실 안내, 무료공개 강좌
34	Quiz Quiz	퀴즈 퀴즈 제42회

2008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인하중앙의료원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취임

인하학원 이사장



# 우리목표는 아시아 지역 메디컬센터의 중심으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 인재를 배출하고 우리나라 의학계를 선두해 나가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받고 인정받는 의과대학과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성화를 해야 하고 우리의 목표는 한국에서의 의과대학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메디컬센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은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종합적인 진료 기능을 보유해야 하겠지만 특성화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전문의료인입니다. 우리의 고객은 환자들이고, 환자입장에서 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지 내가 아는 지식을 베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대학은 처음부터 인맥과 파벌을 없애고 능력위주로 병원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섰을 때 의사를 신뢰하여 자기의 건강과 병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또 의사의 진단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전문화 특성화는 팀워크이지 어떤 권위주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의 스타의사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하나의 스타의사에 의해 전부 끌려가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팀워크에 의해서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것이 제가 바라는 병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과대학교육은 개선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턴, 레지던트 수련 후 모든 것을 진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가 나와야 하고, 또 전문지식만 갖고는 안됩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과대학인을 키워야 되고 교육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의료인도 아니고 전문지식도 없지만 일부 병원에서 과잉진료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일부 작은 병원에서 레이저로 무통치료, 당일 퇴원한다고 선전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수익은 높을 수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후유증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목격도 했습니다. 우리 인하대병원은 지금 당장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단기적인 영리위주로 해서 도덕성을 버리는 그런 진료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계명문대학과 커넥션, 투자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가 USC 재단 이사로서 USC 의과대학과도 관계가 많을 뿐 아니라 전문의과대학에도 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흥 총장과 제가 노력만 하면 의료원장과 병원장이 약속한 것을 하나의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표를 앞으로 10년 내에는 지난 10년보다 더 많은 발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두익 의료원장, 박승림 병원장, 그리고 손병관 의대학장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지난 12년과는 완전히 다른 병원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세분의 취임을 축하 드리면서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8. 3. 14  
 인하학원 이사장 조양호

# 명품 병원, 세계적 의과대학을 향한 비장한 열정!



새롭게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이두익 의료원장, 박승림 병원장, 그리고 손병관 의대학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보직을 맡게 된 모든 분들을 비롯한 전임 보직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오늘부터 우리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은 새로운 리더,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 출발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변화하지 않는 한 발전이 없습니다.

대학병원들은 1천 병상 시대에서 2천 병상 시대, 나아가 3천 병상 시대로, 진료체계는 '과' 중심에서 '센터'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의대 졸업생의 40%가 개원하고, 환자는 '더 좋은 의료진, 더 훌륭한 의술,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바야흐로 「병원 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의료시장은 개방되고 있으며, 송도에는 조만간 외국병원이 들어설 것입니다. 정부는 종합병원/대학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환자와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병원 서열화가 고착될 것입니다. 의학 교육체제도 의과대학 시대에서 전문대학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전국적으로 최고의 영재를 모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을 시켜 졸업 후 실력과 인성 좋은 인하 브랜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중대과제입니다.

금년은 인하학원이 육영의지를 시작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며, 부속병원이 개원한 지 12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12년의 성공과 실패를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고 반드시 명품 병원, 세계적 명문 의과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비장한 열정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대학총장으로서 새로운 의료원장과 보직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병원 2000 병상 시대의 준비와 이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원, 부속병원, 의과대학의 중장기 전략과 연차계획을 점검 하여야 합니다.

둘째,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오픈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병원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JCI 조기 인증을 추진 해야겠습니다.

넷째, 국내 Top 7의 의학전문대학원 가동을 위한 인재 확보, 교과과정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실험실습실을 갖추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섯째, 대학본부의 IFP 제도를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도 도입하여 스타교수 양성과 유치를 적극 도모합니다.

여섯째, 신약개발, 임상연구, 성체줄기세포를 비롯한 바이오 메디칼 연구를 활성화할 것과 교육, 연구, 의료행정을 위한 국내외 전문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집행부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동안 노고가 많았던 보직자들에게 감사하며, 의료원, 부속병원, 의과대학의 발전과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대학의 INHA는 'Innovation과 Harmony'입니다. 화합 없이 절대로 혁신은 없습니다. 진부한 말 같지만 그것은 세계 어떤 조직에도 맞고 우리병원에도 예외일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14

인하대학교 총장 홍승용

# 열심히 일하는 것이 즐겁게 일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법



존경하는 이사장님, 총장님 바쁘신 중에도 축하해 주시러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여러 역경을 딛고 오늘의 인하대병원이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 앞에서 취임 인사를 드리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성남 인화병원장으로서 뼈아픈 경험을 가졌던 제가 중책을 맡아 이사장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 간곡히 사양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몇 차례 제의를 피하기보다는 저의 마지막 정열과 경험을 인하대병원에 쏟아 부어 세계 속의 초 일류병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되는 것이 더 보람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년 가까이 의료원 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신 전임 보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우리 모두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병원의 현 주소를 직시하고, 앞으로 제가 해 나가야 할 목표 그리고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북아 중심 병원을 목표로 개원한지 12년 이 지나면서 그동안 질적, 양적으로 커다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경인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우뚝 섰습니다만 지금의 의료현실은 과거의 의사나 직원 중심의 진료에서 이제는 환자를 찾아가는 고객 중심의 진료는 기본이며 점점 세분화되는 전문화, 의료기관의 대형화, 글로벌화, 정보화 등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의료 환경이 변화되며, 의료정책 또한 민영의료보험, 영리병원 등이 구체화되고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 기관 평가, 병원 경영 지원 회사의 출현, 임상시험연구소, U-헬스 등의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로 서울의 우수한 대학병원들이 끝 모르는 대형화와 암병원 등 전문화, 정보화 등을 실현하고 있으며 인천 경제 특구 병원 신설이 가시화되고 이웃병원의 암센터 건립 등

정책과 환경변화에 따른 무한 경쟁의 시대에 서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우리는 멈추어 선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언덕에서 멈추어 서 있는 것은 곧 뒷걸음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우리 병원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병원이 의료의 수준은 높지만 접근성, 시설의 편리성, 이용절차의 신속성, 교직원의 친절과 성의 등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면이 나타났습니다. 내부 고객인 교직원 여러분의 만족도도 낮았습니다. 이는 우리 병원의 미래 전망에 대하여 여러분이 우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영함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께서도 현황을 깊이 파악하시고 우려하셔서 의료원의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뚜렷한 실천 목표를 수립하며 경영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하시면서 바쁘신 중에도 교직원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미래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의료원장님과 함께 우리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병원의 경영혁신 방향 및 정책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의료의 질 향상입니다, 맞춤 연수 등을 통한 우수 의사를 양성하고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였던 유명의사의 영입이 필요합니다. 협진 체제의 강화와 전문 센터화 등이 필요하며 JCI 인증을 위하여 준비 할 것입니다.

둘째, 대고객 서비스 향상입니다, 주차장 및 편의시설 개선과 특히 진료 공간 확장, 재비치 및 엔테리어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셋째,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 역량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넷째, 지역임상시험센터 유치, 연구 인센티

브 도입 등 연구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가시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들어가 지속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여 교직원 여러분의 미래 비전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나이프는 이미 가동에 들어가 있고 IGRT, 4D-CT Rimulator 초음파 기기 등 첨단 의료장비의 추가 도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Full EMR 등 정보 System의 획기적 Up grade, 또한 당노·비만센터의 개설 등은 곧 시행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을 비용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알고 의사직을 포함한 전 직종의 우수 교직원에 대하여 선진 의료기관 연구 등을 통한 교육 기회를 드려 개개인의 비전 수립 및 성취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수 및 의료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개혁이나 변화에 가장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병원장으로서 여러분과 대화하며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며, 정보를 공유할 것이며 가시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서로 신뢰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직원 모두는 한 배를 탄 가족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이기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병원에 출근하기가 즐겁고 항상 웃으며 근무하는 그런 아름다운 직장으로 우리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친애하는 인하 가족 여러분!

"We can do it"은 버락 오바마 만이 사용하는 전용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08. 03. 14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박승림

# 인류애를 실천하는 우수한 의료인 양성의 최고대학으로



존경하는 이사장님, 총장님을 비롯한 인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같이 하신 귀빈 여러분 인하 중앙의료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 기관인, 의과대학 학장으로 오늘 의료원장님, 병원장님과 함께, 취임식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한 저는 큰 기쁨으로 한없는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20년 전, 당시 성남에 있던 인하병원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생의 임상 교육을 위한 병원으로 결정되자, 걱정하시며 저녁 늦게 성남 인하병원을 찾아오신 인하의대 초대 학장이셨던 서병설 학장님의 지시로 인하의대 1기생을 위한 임상교육의 기초 작업을 책임졌던 저는, 그 20년 후, 의과대학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틀을 책임지는 학장에 보임됨에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인하의대 25년의 역사 속에서 존경스럽던 여러분의 학장님들을 모시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학사 행정의 작은 일에는 동참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학사 행정의 경험이 많지 않은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전임 학장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특히 의학전문대학원로의 전환을 결정하시고 초기 작업을 해주신 일, BK21이라는 국책 사업을 수주하셔서 우리 의대의 수준을 높이신 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제 2기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최우등의 성적으로 마치신 일 등 좋은 많은 일들을 인수하며 보임되기에 그나마 위로를 받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전임 오중협 학장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책무도 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완벽한 전환과 그에 따른 제반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신입생들을 유지해야 하고, 그들이 만족하는 교육 과정과 학습 내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많은 대학이 이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에, 타 대학이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교육의 globalization도 저의 중요한 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인하의대는 선진국 의대로부터 좋은 교육 제도를 수입하고 있지만 훗날 주변국가나 세계 속으로 우리의 교육 제도를 수출할 수 있는 인하의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system 속에서 교육 받은 우리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세계 속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과대학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중 하나가 의학 교육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연구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연구 중심의 대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을 정도로, 연구는 대학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좋은 업적도 많았던 것을 잘 압니다. 많은 SCI 논문이 나왔고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비 수혜액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형과제를 맡아 수행하고 계시는 교수들이 계시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대학의 연구를 더 대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도 이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학장으로서 저도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국가의 정책 방향이지만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생명과학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그 분야의 산업화까지 우리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과대학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공과대학과는 교류가 시작되었고 그 외의 다른 유관 단과대학과도 만나서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환자를, 선한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되, 같은 대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이 같이 서로의 지식과 기술을 나누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결국은 환자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산업화시키는 최종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한 분위기와 그 체제가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장 보임의 통보를 받고 저는 인하의대 교육목적 해설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저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우수한 의료인 양성' 일에 온 정성을 바쳐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는 희망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료 교수들에게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식근로자임을 인정하며 Peter F. Drucker 교수가 정의한 대로 오늘날의 CEO는 '지식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적용과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명심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같이 노력하여 최고의 의과대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혼자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우리 의과대학의 고귀한 목표를 이루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08. 03. 14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손병관**

# 청신경 초종의 진단과 치료



박현선 교수 | 인하대병원 사이버나이프센터 소장 | 신경외과

## 원인

청신경 초종은 뇌부터 내이에 이르는 제 8번 뇌신경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이다. 제 8번 뇌신경은 두 가지의 신경부위로 구분되는데 한 부분은 소리를 전달하는 부위인 청신경, 다른 한 부위는 내이로부터 균형에 대한 정보를 뇌에게 전달해주는 전정신경으로 분류된다. 8번 뇌신경은 7번 뇌신경과 같이 나란히 놓여 내이도를 통과하게 된다. 7번 뇌신경은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으로 얼굴의 표현을 담당한다. 이 경로의 길이는 약 2cm로 대부분의 종양이 이 부위의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막의 세포에서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발생원인은 잘 모르지만 약 5%내외에서는 제2형 신경섬유종증과 연관되어 발생하기도 하고 이 경우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다 하겠다.

## 증상

청신경 초종은 대부분 양성이고 서서히 성장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신경들과 어울려 증세를 나타낸다. 환자의 90%이상은 한쪽 귀의 청력 감소를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 이런 증상은 또한 대부분 이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청력 감소는 대부분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갑작스런 청력 소실로 내원하기도 한다. 종양은 대부분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데 관여하는 전정 신경에서 기인하므로 어지럼증이나 균형장애를 호소하기도 한

다. 종양이 계속 성장하게 되면 안면 신경이 영향을 받아 안면 경련 또는 안면 근육 마비를 초래하기도 하며 더욱 커져서 뇌간을 압박하게 되면 두통을 호소하고 보행 장애 등을 호소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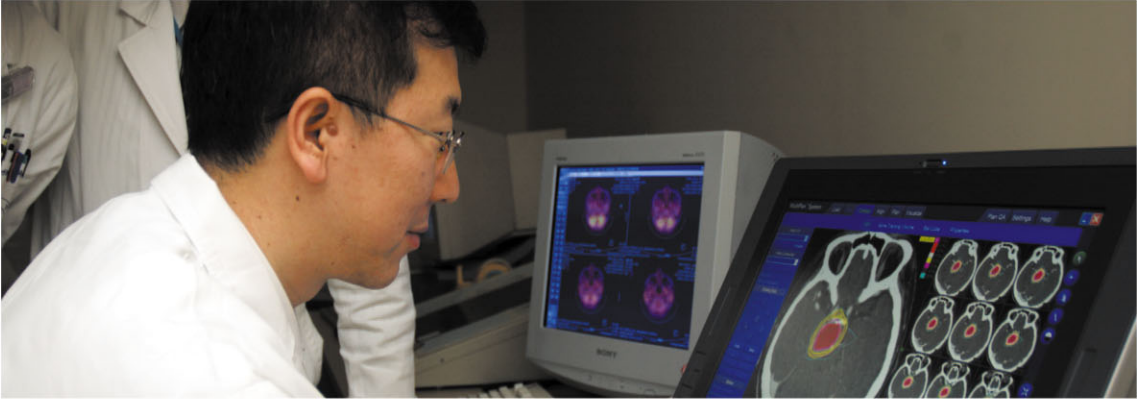
## 진단

종양이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보통 전산화 단층 촬영(CT) 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주 초기의 경우에는 내이도에 국한되어 있어 CT 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특수 기술을 이용한 MRI를 촬영해야 한다. 그 외 청력검사 및 청각 뇌간 반응 검사 등 비영상적 진단이 조기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치료

치료는 크게 1. 수술로 적출하는 방법 2. 사이버나이프와 같은 방사선 수술 방법 3. 그냥 치료 없이 두고 보는 방법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술적 치료를 들 수 있다. 수술은 종양의 크기나 수술의 목적에 따라 크게 3-4 가지 접근법이 이용된다. 첫째는 중두개와 접근법이다. 이 경우는 주로 종양의 크기가 2cm이하로 작을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청력을 보존하기 위한 수술이 될 때가 많다. 하지만 측두엽에 무리한 건인을 해야 하는 것 들은 커 단란 단점이라 하겠으며 청력의 보존율은 약 60%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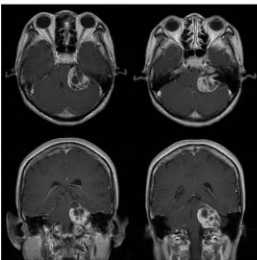


그치게 된다. 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 크게 되면 경미로 접근법이나 후두하 접근법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사실 청력을 보존한다는 것은 어렵다. 경미로 접근법을 택하는 경우 청력을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100%의 청력 손실이 오게 된다. 후두하 접근법을 이용하더라도 청력의 보존율은 약 40% 정도이다. 종양이 아주 커져서 뇌간을 압박하는 경우는 두개저 접근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청력 보존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게 되고 수술 자체도 아주 어렵게 된다. 종양의 크기와 수술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확한 신경 확인 장치를 이용하면 안면 신경의 보존율은 약 80~90%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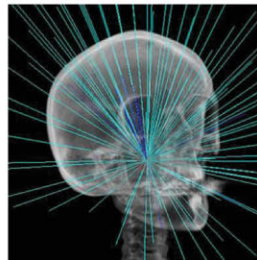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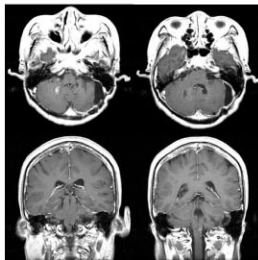
**두 번째 치료 방법은 방사선 수술이다.** 방사선 수술은 정밀하게 뇌에 목표지점을 정하고 그곳에 방사선을 집중 투여 함으로 종양의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고용량의 방사선을 투여하게 하

므로 대개 종양의 크기가 3cm미만인 경우 이용하게 된다. 뇌에 대한 방사선 수술은 약 30년전인 스웨덴의 신경외과 의사 Lars Leksell에 의해 발명된 감마나이프가 1988년 스웨덴 Uppsala 대학에 설치된 것이 처음이며 현재까지 수술로 치료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종양 치료의 좋은 대안이 되어 왔다. 최근 도입된 사이버 나이프 역시 Stanford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인 John Adler 교수에 의해 발명이 되었다. 방사선 수술의 대표적 기기인 두 가지 장비가 모두 신경외과 의사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방사선 수술은 모두 신경외과로부터 태동되었고 신경외과에의 방사선 수술의 역사는 이미 30년을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신의 영역인 뇌의 질환과 싸우는 신경외과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감마나이프의 단점은 환자께 틀을 고정하기 위해 머리에 핀을 삽입해야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방사선의 분할 치료가 불가능

▼ 수술전



▼ 수술후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면 신경, 청신경, 삼차 신경 등의 보존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이버 나이프는 기존의 수술 치료와 비교할 때는 물론 기존의 방사선 수술과 비교하여도 청력 보존율에서 우수한 성적이 보고 되고 있다.

하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청신경 초종은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전정신경에서 기인하지만 청신경 및 안면 신경과 내이도 내에서 주행 경로를 같이 하므로 방사선 수술 시 고용량의 방사선에의 노출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방사선을 분할 조사하는 경우 종양 조직은 직접 조사 효과에 의해 손상을 입지만 정상적인 신경 조직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므로 정상 신경조직의 보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기존의 방사선 수술 장치 또 하나의 제한 점은 종양의 모양이 불규칙 한 경우 종양내에 고르게 방사선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나이프는 매우 고무적이다. 즉 머리에 핀을 삽입하지 않아도 되고, 종양의 모양이 불규칙 하더라도 종양 전체에 고르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면 신경, 청신경, 삼차 신경 등의 보존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이버 나이프는 기존의 수술 치료와 비교할 때는 물론 기존의 방사선 수술과 비교하여도 청력 보존율에서 우수한 성적이 보고 되고 있다. 방사선 수술의 장점은 머리를 열지 않고 수술하므로 입원이 필요 없고 치료 후 1~2일 뒤에는 일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수술과는 다르게 치료자에 의한 치료성적의 편차가 적어 그 결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이버나이프의 경우 종양의 치료율은 95%이상 보고 되고 있고 청력 보존율은 75%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세 번째**는 그냥 두고 보는 것이다. 종양이 아주 작은 경우나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 정기적으로

MRI 등을 시행하면서 관찰할 수도 있다. 많은 종양은 양성이고 자라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 약 50%에서는 종양이 연간 1~2mm의 속도로 자라고, 약 20~25%의 종양에서는 조금 빠르게 성장하여 연간 2mm 이상의 속도로 자라게 된다. 약 25~30%의 종양에서는 자라는 속도가 아주 느려 연간 1~2mm 이하여서 MRI에서 자라지 않는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기다리면서 6개월 간격으로 MRI 등을 시행하면서 종양의 성장 여부를 관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험성은 있는데 약 10~43%의 환자에서 기다리다가 유용한 청력기능을 손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아주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그 치료 방침을 정리해보면 종양의 직경이 10mm이하이고 내이도 내에 국한되어 있으면 사이버나이프 등의 방사선 수술 또는 미세수술, 직경이 10mm~30mm이면 사이버나이프 등의 방사선 수술, 직경이 30mm 이상 되면 수술이 우선적으로 권장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원칙이고 환자 개개인의 병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종양이 커다란 경우에도 종양을 수술적으로 일부 제거하고 정상 신경의 손상의 위험이 있는 부위는 남겨둔 뒤 후에 방사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 치료팀과 상의 해야 한다. 특히 신경섬유종증 제2형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치료에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특별한 주의를 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경외과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2370

# 활기찬 봄을 만끽하기 위한 준비 춘곤증



김경우 교수 | 가정의학과

봄의 나른함과 피곤함은 그 동안 바쁘게 살아온 분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생동하는 봄의 대자연과 함께 운동도 즐기고 신선한 봄나물과 채소도 즐기면서 건강을 챙기라는 자연과 신체의 메시지가 아닐까.



차가웠던 바람이 따뜻해짐을 느끼면서 잠시 돌아보면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꽃이 피는 봄을 체감하게 된다. 매년 맞는 봄이지만 자연의 신비로운 생동감은 언제나 마음을 들뜨게 한다. 기온이 따뜻해지면 누구나 나른함을 느끼게 되는데 예로부터 춘곤증이라는 단어로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다.

춘곤증은 봄철 피로 증후군(Spring Effort Syndrome)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서양 문헌에는 관련 연구나 관련 기술이 드물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등지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닐까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피로의 원인은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홍반성 루푸스와 같은 류마티스성 질환, 간염이나 간경화와 같은 간장 질환, 신부전등의 신장질환, 심장질환, 폐질환, 결핵과 같은 감염질환, 각종 암, 근육통과 인후통이 동반되고 목 겨드랑이 임파선이 아픈 만성피로증후군, 우울

증과 같은 심리 정신적인 요소까지 실로 매우 다양하여 거의 모든 질병에서 피로 증상이 동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쉽다. 따라서 피로 증상이 있으면 피로 이외에 동반된 다른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거에 어떤 질환을 앓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병력청취와 신체 진찰, 기본 검사와 관련 정밀검사, 암 선별 검사 등으로 피로를 유발하는 질환에 대한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관련된 신체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에는 신체가 보내는 신호대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며 체력 회복에 힘을 써야 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춘곤증 역시 잠깐의 휴식을 원하는 몸의 신호이다. 짧은 시간 낮잠을 자는 것이 심장병, 기억력 등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있으니 춘곤증을 억지로 이기려 하지 말고 졸리면 편안한 자세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좋다. 또한 매일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시간 틈틈이 걷는 시간을 늘리고 스트레칭을 하



## S t r e t c h i n g

가장 흔한 경우는 자신의 체력을 넘어서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며, 실제로 들어보면 직장 근무는 기본이고 하루 종일 긴장된 자세로 앉아서 컴퓨터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시간의 근무, 내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집안일, 연일 계속되는 과음과 수면부족, 과식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흡연 등 체력을 소진시킬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피로감은 휴식을 원하는 신체의 신호로서 우선은 숨겨져 있는 병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거나 따뜻한 몸을 만끽하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운동들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술 약속은 줄이거나 점심약속으로 바꾸고 술자리에서도 3잔 이하로 절주하고 기름진 안주는 피하고 일찍 귀가하여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몸의 나른함과 피곤함은 그 동안 바쁘게 살아온 분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생동하는 봄의 대자연과 함께 운동도 즐기고 신선한 봄나물과 채소도 즐기면서 건강을 챙기라는 자연과 신체의 메시지가 아닐까.

●가정의학과 032-890-2240

(사진제공 : 여성동아)

# 더 졸린 커피보다 녹차와 봄나물로 확 깨다

봄철 나른한 「춘곤증」

간식 & 레시피 | 영양학



길었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힘이 없고 온 몸이 나른해지며 쏟아지는 졸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신체가 따라 가지 못해 일시적으로 생기는 부정응 증세를 춘곤증이라고 한다. 춘곤증은 보통 3월 중순~4월 초에 나타나는데, 1~3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춘곤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겨우내 움츠렸던 신체가 외부환경변화로 인해 생체리듬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봄이 되면서 일조시간이 길어지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근육이 이완되어 나른함을 느끼게 되고,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피로를 느끼는 것이다. 또한 외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활동량이 늘어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비타민 소모량은 겨울보다 3~10배 증가되는데,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생기는 영양상의 불균형이 춘곤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사를 대신 할 경우 비타민C나 대뇌 중추를 자극하는 비타민B 등이 결핍되어 춘곤증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스한 오후 몰려오는 춘곤증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봄나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B1은 현미, 울무, 통보리 등 도정하지 않은 곡류와 돼지고기, 말린 버섯, 호두나 잣 등의 견과류, 콩류 등에 많이 들어있고, 피로를 줄이고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비타민C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에 풍부하다. 특히, 쑥, 냉이, 두릅, 미나리, 꽃마늘, 원추리, 취나물 등의 봄나물에는 입맛도 돋워주고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다. 냉이는 단백질과 칼슘, 철분, 비타민A, 달래는 비타민C와 칼슘, 취나물은 칼슘과 비타민C, 노화방지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있다. 또한 각종 해조류에도 비타민, 무기질 등 미량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므로 끼니때마다 다시마, 미역, 돈나물, 파래, 김 등 해조류를 곁들여 먹으면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단백질은 면역기능 강화, 체조직 구성, 생리조절 작용, 에너지를 제공하는 주요 영양소이므로 부족되지 않도록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육류, 생선, 우유, 치즈, 달걀, 콩류 등이다.

### 아침을 꼭 먹고, 하루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아침을 굶고 배고픈 상태에서 오전을 보내면 점심식사를 과식하게 되고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려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뇌의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어 춘곤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하루 두 끼 식사보다 세 끼에 나누어 가볍게 식사하는 것이 좋다.

### 커피 및 청량음료의 섭취를 줄인다

졸음 때문에 커피나 청량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은 춘곤증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커피보다는 비타민B1, B2, C가 골고루 들어 있는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밥은 쌀밥보다 현미, 보리 등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으며, 반찬은 봄나물을 자주 섭취하도록 한다. 아침에는 김정콩밥, 쑥국, 병어조림, 김구이, 점심에는 봄나물 비빔밥, 조개국, 두부조림, 씀바귀김치, 저녁에는 영양밥, 냉이된장찌개, 옥돔구이, 참나물 무침 등 하루 세 끼 규칙적인 식사와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사로 봄의 불청객 춘곤증을 이겨보도록 하자.

●영양과 032-890-3260



### 두릅초밥

▶ 재료 : 두릅 10개, 불린쌀 1컵, 물 1컵, 다시마 가쓰오부시 국물 2컵, 간장 2.5큰술, 맛술 2.5큰술, 소금 1작은술, 김, 냉이, 가쓰오부시 약간 \*초밥초 : 식초 2큰술, 설탕 2큰술, 소금1큰술

- ① 분량의 쌀과 물을 섞어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은 후 식초, 설탕, 소금을 살짝 끓여 뜨거운 밥 위에 끼얹어 재빨리 식혀 놓는다.
- ② 두릅은 껍질에 싸인 싱싱한 두릅을 준비해 밑동을 잘라내고 붉은 빛이 도는 껍질을 떼어낸다.
- ③ 손질한 두릅은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밑동부터 잠기게 넣고 데친 다음 재빨리 찬물에 담가 완전히 식힌 후 물기를 뺀다.
- ④ 다시마 가쓰오부시 국물에 맛술, 간장, 소금을 넣고 살짝 끓여서 식힌 다음 데친 두릅을 넣어 1시간쯤 담가둔 뒤 물기를 살짝 짜낸다.
- ⑤ 초밥을 한 손으로 뭉치고 고추냉이를 바른 다음 두릅을 밥 위에 얹고 넓이 1cm로 자른 김피를 두른 후 가쓰오부시를 두릅 위에 뿌린다.



### 미역오징어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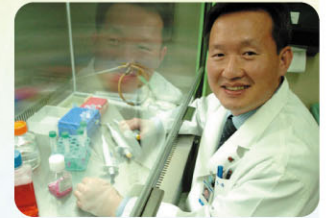
▶ 재료 : 물미역 200g, 오징어 1/2마리, 오이 1/2개, 맛살 2개 \*소스 : 다진 마늘 2큰술, 설탕 1큰술, 식초 1큰술, 물 1큰술, 소금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 ① 물미역은 찬물에 담구었다가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물에 알맞게 데쳐서 냉수에 행군 후 적당한 길이로 자른다. 연한 줄기는 골라 가늘게 손질한 뒤 6cm 길이로 자른다.
- ② 오이와 맛살은 길이 6cm, 두께 0.3cm로 잘라 준비해 둔다.
- ③ 오징어는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기고 안쪽에 어슷하게 가로, 세로로 칼집을 넣는다. 두께 1cm, 길이 7cm정도로 잘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 물기를 뺀다.
- ④ 다진 마늘 2큰술에 물, 설탕, 식초, 소금, 참기름을 고루 섞어 마늘 소스를 만든다.
- ⑤ 오이, 맛살, 오징어를 섞어둔다. 접시에 미역을 보기 좋게 깔고 섞은 재료를 올린 다음 마늘 소스를 뿌려낸다.



- 인하대병원 송순욱 교수팀 -

## 단일성 성체줄기세포 분리기술 특허 획득



송순욱 교수 | 임상연구센터

인하대병원 임상연구센터 송순욱(46) 교수가 자체의 독자적인 기술로 생명윤리 논란이 없는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의 새로운 분리추출법 개발에 성공하여 2005년 6월과 8월 국내외에 각각 특허를 출원하여, 2008년 1월 31일에 한국특허청으로부터 국내특허에 대한 등록(등록번호: 10-0802011)을 획득 하였다.

인하대병원 임상연구센터 송순욱 교수팀은 사람과 동물의 골수로부터 ‘증분리배양법’ 이라 명명한 분리방법을 이용하여 성체줄기세포들을 기존의 방법들과는 차별된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Stem Cells and Development’ 라는 줄기세포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되어 2008년 6월호에 발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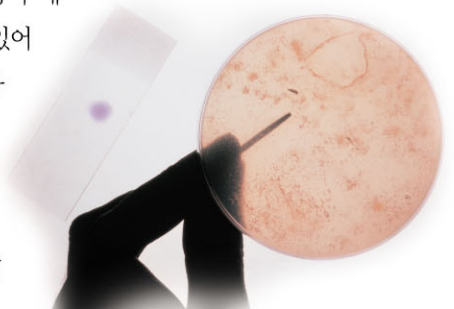
‘층분리배양법’의 최대 장점은 순도가 매우 높은 단일성 성체줄기세포 (Clonal Adult Stem Cell)의 분리가 가능하며, 질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개발된 성체줄기세포 분리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성체(중간엽)줄기세포는 기존에 알려진 연골, 뼈, 신경, 심장근육 등의 조직재생뿐만 아니라, 이식편대숙주질환, 류마티스관절염, 제1형 당뇨병, 루푸수 등 면역계 질환들의 세포치료제로도 개발될 수 있다. 의학계에서는 특히 건강한 제3자의 몸에서 추출된 중간엽줄기세포를 타인에게 주입하였을 경우에도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실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간엽줄기세포가 가장 유용하게 세포치료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08년 5월부터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업화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7년 10월에 완료된 동물 독성시험에서는 현재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줄기세포수의 20배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안전성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간엽줄기세포 분리방법에 대한 특허권은 미국 세포치료제 회사인 오사이스사(Osiris Therapeutic Inc.)가 소유하고 있는데, 차후에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하는 병원 또는 세포치료제 회사들이 이 회사의 분리방법을 사용하여 중간엽줄기세포를 생산할 경우 막대한 로열티를 이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된 기술의 기대효과로는 한국 고유의 원천적인 지적재산권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이어져 부가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송 교수가 새롭게 개발한 골수유래 성체줄기세포 분리기술은 줄기세포 분리과정의 오염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단일성 성체줄기세포의 대량생산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 방법이다. 송 교수 연구팀은 골수유래 단일성 성체줄기세포 Library를 만들어 각 질환별 가장 알맞은 성체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임상시험에서는 우선적으로 난치성 면역계질환들인 이식편대숙주질환과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목표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2007년 초에 식약청의 승인을 획득하고 인도적인 차원으로 인하대병원에서 실시하였던 이식편대숙주반응질환 환자 치료 응급임상시험에서, 생명이 매우 위독했던 환자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우수한 임상 경험도 가지고 있어서 올해 전반기부터 수행되는 본격적인 상업화 임상시험에서도 훌륭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본 성체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연구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 연구비와 인하대학교 재단의 산학협력 연구비로 이루어져 왔으며, 인하대학교와 병원에서는 최신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시설 신축 및 무균 동물실험실을 확충하는 등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활발하게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연구센터 032-890-2461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마치고

# 건강도 챙기고 여가도 즐기는 의료관광시대



한국관광공사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제1기 양성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하고 어떤 교육을 받을지에 대해 설렘과 기대 속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석현숙 주임 | 원무보험팀

제1기 양성교육 대상자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회의 소속 34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의료서비스협회는 07년 3월에 발족되어 우리나라가 해외환자유치의 선두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우제홍 전 병원장님께서 초대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회의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이란 의료서비스와 관광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관광 형태를 말하며 관광산업이 발달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관광산업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관광에 대하여 T.V 방송을 통해 처음 접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동남아시아 병원을 찾는 과정을 방영하였는데, 입국 순간부터 외국인 전용 Clinic center를 이용하는 모든 일이 One-stop으로 진행, 통역은 물론 심지어 비자 연장업무도 병원에서 볼 수 있고, 치료 받기 전 안정

을 취할 수 있는 SPA를 갖추고 있었으며, 치료가 끝난 후 호텔예약, 주변관광안내에 이르기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별천지 이야기인 듯 부럽기만 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아니 우리병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중 한양대학교 국제협력병원 현장실습을 나가보니, 한국 거주 외국인, 미군 및 그 가족들, 주재원들을 위한 Coordination 24 hours on call service 및 전용 차량 배치, 해외환자가 진료 후 돌아간 후의 feedback 관리 등 다양하게 관리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해외검진 유치에 활발한 활동으로 미주지역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여행사, 항공사와 연계하여 고국 방문 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한 검진 패키지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으로 해외검진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양대병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대



강남센터, 국제청심병원, 우리들병원, 삼성국제진료소, 국립암센터 등 국내 유명병원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해외 검진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하대병원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창구(외래10번)를 개설하여 외국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자면 1년 전 한국에 업무 차 홍콩에서 오신 Mr. Chan이 쇼크로 인하여 본원에 거의 30일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분들도 모두 홍콩에서 들어와 돌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의 부탁으로 호텔도 예약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들과 인연이 지속되어갈 무렵 마침 환자가 퇴원을 하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제주 관광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의료와 관광의 연계>라는 개념 없이, 외국인 환자분이니 그저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했을 뿐이었고, 호텔에서 여행스케줄까지 빠른 처리가 안되어 힘들었고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의 일들이 코디네이터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과, 홍보마케팅 부족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국가로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남아 국가는 정부차원에서 홍보마케팅에 적극적입니다. 넓은 해외의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료기관의 관심 및 적극적인 마케팅 및 홍보와 의료관광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 육성,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최근 저희 본원에도 외국인 내원이(해외교포 포함) 증가 추세에 있으며, 미주 및 해외 한인 동포들의 해외검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병원,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좀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통역이 아닌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인재육성과, 외국인(해외교포포함) 해외유치에 관심을 갖고 본원에서 검진 후 자국으로 돌아가 친지들 혹은 지인들에게 홍보마케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코디네이터가 아니더라도 교직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홍보맨으로서 역할을 해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코디네이터는 없을 것입니다.

▼ 둘째줄 우측 5번째 석현숙 주임



2008년 인하대병원

산악동호회 시산제 산행을 시작하며.....

# 오로지 두 발로 올라서는 땀방울의 행복

차상영 방사선사 | 영상의학과

## 가벼운 산행에서 땀의 기쁨을 만끽하다

시산제 준비에 마음마저 분주했던 출발 전일 몇 방울 떨어지는 겨울비의 잔상때문이었던지 포근한 날씨의 바람은 빗기여가고, 겨울 쌀쌀함이 강한 바람에 묻어 발길을 잡는다.

강화도 마니산.....

여러번 찾아온 마니산에 대한 특별한 기대없이 2008년 산악회의 시작을 알리는 시산제를 드리기 위해 선택한 가깝고도 나름 긴장한 마니산 산행을 시작했다. 쌀쌀한 바람에 눌러 겨울 가뭄 푸석한 산길은 결빙으로 중간중간 발걸음을 기우뚱이게도 하지만, 한걸음한걸음 치고 올라가는 산 정상에 가까워 올수록 계단의 벽참을 잠깐 쉬고 오를 수 있는 쉼터에서 바라본 강화도 빙 둘러 펼쳐진 아랫 동네의 포근함이 세찬 바람을 뚫고 비친 겨울 햇살 속에 한가롭다.

사진을 몇 장 남기고 정상을 향해 오르는 가파름 조차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음이 그지없이 좋다.

매번 느끼는 점이지만,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다. 정상에 가까워 올수록 가파른 외길과 바윗덩어리들의 나란함으로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나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겨울 바람속에서 땀방울을 솟아내며 발걸음 뿌듯함으로 오르는 정상에는 웃음 가득 머문 얼굴들이 한가득하다.

그 속에서 행복을 만끽한다.





### 시산제... 안녕을 기원하다

함허동천의 시산제에서 인하대병원 산악회 회원들의 일년 산행 내내 무사 안녕을, 인하대병원의 심 없는 번창을 그리고 내 가족의 건강과 안녕도 살짝 곁들였다.

부어지는 술잔과 몇 번의 절 속에서 각자의 안녕을 빌며 새삼스럽게도 우리네 토속 신앙과도 같은 시산제에 묘한 매력을 느껴본다. 표현하기 힘든 마음의 의지 같은.....

### 산은 올라야지만 제대로 보여준다

오로지 두발로 올라야지만 보여주는 마니산 정상에는 드넓게 펼쳐진 시리도록 아름다운 갯벌 속삭이 빛을 발하고, 햇살 속에 모여있는 집들이 넓은 논자락을 마당삼아 옹기종기 평화롭고, 썰물에 흘러가듯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고기잡이 배들이 몇 척 한가롭다.

겨울 바람 쌀쌀함 속에 찾은 강화도 마니산에서의 시산제를 곁들인 산행은 네 시간 남짓 그리 길지 않은 산행이었으나, 정상에서 펼쳐 보인 아래의 풍경은 참으로 기대감 이상 벅참으로 다가왔다.

땀과 가쁜 숨을 토해내고서야 비로소 오른 정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풍경을 맘껏 품고 내려온다.

산에 오르거나니 하루가 뿌듯하다.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몇 잔의 술기운이 더해져 2008년 인하대병원 산악회 시산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다.

### 행복이 하루를 꽉 채운다.

始  
山  
祭

정년퇴임을 맞으며 \_

# 새로운 운명의 수레바퀴로 남은 여정을 새 출발합니다!



이장호 부장 | 진료지원과

1977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16년 근무하고, 1993년에 인하대병원 건립본부에 파견되어 15년, 한진그룹에 31년 몸을 담고, 오늘 정년퇴임을 갖기까지, 동료 교직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은 봉급을 조개 검소하게 생활하며, 충분하게 뒷바라지를 하여 주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잘 자라, 각자 성인이 되어 행복한 한 가정을 이뤄 잘살고 있는 저의 처자식들을 보며, 간혹 한진 그룹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 지난날을 돌이켜 그간의 잘한 일보다, 미련과 아쉬운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일, 그리고 일상사 등 수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딪친 사람과 수행한 일에서 좀 더 잘해드리고,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난 분들과 이룬 일들의 소중한 인연을, 마음속 깊이깊이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아쉬움과 미련을 거울삼아 가장 중요한때는 바로 '지금' 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 역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범한 이치를 알고 제 인생의 2막을 향하여 떠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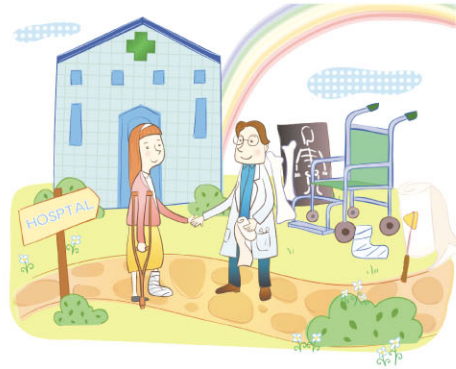
이제 저는 지금까지 달려온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했던 인생의 수레바퀴를 지나간 속명으로 돌리고 새로운 운명의 수레바퀴로 바꾸어 앞으로의 남은 여정을 힘차게 새 출발 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내 삶의 터전이었고, 내 젊음을 바쳐온 이곳 한진그룹, 인하대병원 동료교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야인으로 물러가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내 고향을 생각하는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인하대 병원에 관심과 애정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시든 일마다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의학과’ ‘곳’이지? 뭐하는



임수진 전공의 | 영상의학과

얼마 전까지도 ‘방사선과’라고 불리어왔던 ‘영상의학과’는 어떤 일들을 하는 과인지 이름만 보아서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막연하게 X-ray나 CT, MRI를 찍는 곳이었거니 한다. 물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판독하는 것은 영상의학과 의 큰일이다. 판독 결과는 때로 환자의 그냥 지켜볼지 수술 여부를 결정짓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종영된 ‘뉴하트’라는 의학드라마가 있다.

사람의 심장을 다루는 흉부외과 의사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였지만 간간이 영상의학과 의 역할을 엿보여 주기도 했다. 드라마 초반에 레지던트 1년차로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은성’은 탁월한 감각으로 조폭환자의 대동맥장관류를 의심한다. 그리고 그 질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CT 검사를 통해서였고 이 일로 ‘꼴통’에서 조금은 벗어난 모습으로 주위의 인정을 받는다.

영상의학과에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intervention(중재적 방사선 시술)을 통해 진단을 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할 수도 있다.

CT에서 장으로 가는 혈관들에서 출혈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도 그 혈관들을 색전술을 통해 수술 없이도 지혈이 가능하고 간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항암

물질을 이용해서 간세포암을 치료하기도 한다.

사진을 판독하고 중재적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이 있다.

초음파는 CT나 MRI처럼 수술을 통하지 않고서도 몸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신기한 기계이다. 초음파는 많은 경우 Screening의 목적으로 조기암을 빨리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후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를 불룩하게 내밀고 숨을 잠시 참아보세요.” 지난 두 달간 초음파실에서 일하면서 입에 붙어 버린 말이다.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더 좋은 영상을 기계로 찾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환자분들에게 숨을 참아달라고 하거나 몸을 옆으로 눕혀달라고 한다. 그래야만 복부 장기의 숨어 있는 부분도 기계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최대한 구석구석 살살이 뒤져서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힘 들 정도로 환자분들에게 숨을 참으라고 말해야 한다.

영상의학과 전공의로 일하는 것은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병을 접한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매력적인 일이다.

앞으로 영상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으로서는 확인하지 못하는 미지의 질병에 대하여서도 영상의학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 아름다운 인연이 전하는 감사의 말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병원에 입원,  
먼저 안과 선생님 면담을 한 후 병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중환자인양  
고개를 떨구고 병실에서 차려준 밥상을 맛나게 먹고 있을 때쯤,  
안과에서 내려오라는 전화다.

키는 작지만 힘은 천하장사일 것 같은 이수정 선생님의 수술에 관한 얘기,  
수술 후 지켜야 할 사항을 의학적 상식이 없는 나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꼼꼼히, 씩씩하게 설명하신다. 설명하실 때 표정 변화는 없고 두꺼운 입술만  
움직인다. 잠을 못 자서 피부에 각질이 있는 거 빼고는 다 귀엽다.



다음날 늦은 오전(11쯤), 드디어 수술실이다.  
부분 마취를 한 난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수술실 안의 모든 움직임  
다 들을 수 있다. 친절간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 속아, 아픈 것도 엄지발가락을  
비틀면서 참고 모든 수술준비 완료에 협조를 했다.

이윽고 귀공자 같은 진교수님 등장,  
조금 촌스럽게 생긴 김이태 선생님의 준비완료를 알리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내 눈을 좀 먹고 있는 나쁜 균을 쓱쓱~쓱쓱~.....  
노련한 솜씨에 놀란 것이 아니라 수술하고 있는 동안의 대화 내용에 놀란  
것이다. 드라마에서 본듯한 딱딱하고 공포에 가까운 권위적인 분위기를  
상상했던 나를 깡그리 무시했다.

제자들과 수술 중 대화,  
수술 중 환자를 배려하는 말솜씨(?)에 난 그저 누워서 감격해 하면서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아픈 눈으로 그래도 먹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안과에서 또 연락이다. 안과 특성상 회진은 내려가서 해야 하기에 2층 안과로 행진,  
가자마자 **허여말건 강행구 선생님**의 안약 투여다. 약간 서툰 솜씨지만  
엄마 대하듯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약간 아주 약간 촌스런 김이태 선생님의 수술결과에 대한 친절한 설명에 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설명하시는 모습에 철가방이 생각난다. 수술칼 보다는 철가방(자장면배달)이 잘 어울릴듯하다.

안과를 나오는데 막내인듯한 김경은 선생님따라 나와서 휠체어로 병실까지 배달해 주신다. 아직 병원 일에 익숙한 표정은 아니지만 조심조심 열심히다.

수술 다음날 아침

회진 차 2층 안과에 내려갔더니 선생님들 벌써 말쑥하게 차려 입고 환자를 맞이하신다. 많은 환자들 10분 간격으로 안약을 정성껏 분주하게 넣고 있다.

난 일주일 동안 수술하고 입원을 하면서 많은걸 느꼈다.

예전에 권위적인 의사선생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대하는 모습,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글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자상한 진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퇴원 후 며칠 지나서 안과에서 걸려온 전화다.

열심히 집에서 잘 치료하고 있냐고.... 잘 관리해서 다음 주에 뵙자는 멘트다. 그야말로 고객 감동이 이런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시각에도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하고 있을 것 같다. 그저 고맙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진교수님, 안과 모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과 선생님 화이팅!

2008. 3. 10

연수동 남정숙 올림 ....

\* 이 글은 남정숙님께서 2008년 3월 3일부터 동월 7일까지 안과 1207호에 입원하여 본원에 대한 느낀 점을 인터넷 고객의 소리함에 남기신 글입니다.

# Q Question \_ Answer \_ A



## Q 자궁내막증 치료받은 환자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가다실)접종 가능한가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가다실)을 저처럼 자궁내막증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맞아도 되는 백신인가요? 그리고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 내과 전문의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주사를 처방해도 무방한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 2차 병원에서는 백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 상담과 관철만 가능하다면 꼭 관련 진료과 선생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하구요. 저는 인하대병원에서 맞고 싶은데요.

### A 자궁내막증은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접촉을 통한 HPV(인두유종바이러스)감염 전에 접종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백신 접종의 최적 연령은 15~17세이며, 이 시기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 18~26세에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45세의 여성의 경우 접종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진행 중입니다.

백신은 병원마다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대학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외에도 임신부나 중증도의 급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접종을 연기하여야 하니 접종 받고자 하는 병원에서 자세한 상담 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산부인과 ☎ 032-890-2270

## Q 급성신우신염의 발병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급성신우신염이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계나 그 외에 청결문제 인가요? 궁금합니다.

### A 급성신우신염은 여성에서 주로 발생, 피곤한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급성 신우신염은 주로 여성한테 발생하는 질환으로 남성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급성 신우신염은 회음부의 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을 거쳐서 요관과 신장에 까지 이르러 염증을 일으키는 상행성 감염과, 혈액 속의 세균이 신장에 파급되는 혈행성 감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상행성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짧고 요도가 항문과 가까운 여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방광염이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듯이 신우신염도 방광염의 심화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피곤한 경우에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신우신염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비뇨기과 ☎ 032-890-2360

## Q 소아위염이라고 합니다. 계속 구토를 하는데 음식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5살이고, 이를 전 아침부터 먹는데로 구토를 해서 오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소아위염이라고 합니다. 약을 지어주시고 죽을 먹고 이온음료를 먹이라고 일러주셨는데 약은 쓰다고 먹을 생각을 안하고 이온음료도 안마십니다. 물, 죽, 과일 같은 건 먹고 싶다하여 주고 있습니다만 먹고 나서 한 30분 후엔 토합니다. 실사와 열은 없고 오로지 배만 아프다고 합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다른 조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피해야 할 음식과 먹어도 될 음식엔 어떤 게 있나요?

### A 탄산음료나 맵고 짠 자극성 음식만 피하고 평소 먹는 음식을 드셔도 됩니다.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없고, 복통과 구토만 있는 것으로 보아 병원에서 들으신대로 급성 위장염 보다는 위염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소아에서는 성인처럼 위산 과다 등에 의한 위염보다는 바이러스에 의한 위염이 더 많습니다. 의사에 따라 배감기, 위염, 장염 등으로 표현하는데 대부분 며칠 이내로 호전됩니다. 다만 위염 뿐만 아니라 장중첩증, 장마비 등에서도 복통과 구토 증상이 있고, 이 때는 치료가 달라지니 며칠 내로 확실한 호전이 없다면 다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음식은 탄산 음료나 아주 맵고 짠 자극성이 큰 음식만 아니면 평소 먹던 것을 그대로 먹게 하셔도 됩니다.

➔ 소아청소년과 ☎ 032-890-2260

## Q 전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재발했다고 합니다. 사이버나이프수술이 가능한가요?

### A 예전에는 재치료가 거의 불가능했었고,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은 가능합니다.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의 장점 중의 하나가 이전에 방사선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방사선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재치료가 거의 불가능했었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부작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도입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받은 방사선량과 시기, 재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시안이기는 하지만 재치로도 가능합니다.

➔ 사이버나이프센터 ☎ 032-890-3076



약 물 Q & A

수면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입 마름, 현기증 증상 있어,  
중단할 때도 전문의와 상의해야



1

수면제를 오래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수면제는 3-4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약에 의존하게 되거나 내성이 생겨 약의 용량을 점차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뇌파 및 구조가 변하게 되어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에서 출발하여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약을 중단할 때에도 전문의와 상의 하에 서서히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2

약국에서 파는 수면제는 병원에서 처방 받는 수면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은 흔히 알레르기 증상 치료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인데, 진정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수면유도제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약들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들처럼 뇌에 직접 작용하거나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수면작용이 약하고 습관성, 의존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장애나 전립선비대증 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과량 복용 시 입이 마르거나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아이들이 복용하는 포크랄 시럽은 어떤 약인가요?

소아 및 유아의 수면치료에 사용하는 포크랄 시럽은 진정제로서 보통 불면증, 수술 전 진정에 쓰입니다. 보통 수면제와는 달리 습관성이 없고 호흡, 혈압, 반사 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아과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정된 상태에서 처치, 시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30분-1시간 정도에서 효과가 나타나며 작용은 4-8시간 지속됩니다. 피부나 점막을 자극하여 복용이 거북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희석(물이나 주스 반 컵 정도)해서 복용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먹자마자 토할 경우 다시 같은 양을 복용시켜야 합니다.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3327 | 야간 032) 890-3315



# 중국 펀드 어떻게 하지?

폭락한다고 서둘러 환매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요새 직장인들 모였다 하면 펀드 투자 얘기가 대부분이 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PB이면서 개인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누적수익률도 많이 줄었고, 일부는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펀드 투자는 3년 이상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였고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갈아타야 할 펀드는 없는지 살펴보는 정도이고 고객 펀드 배분 전략에 대한 생각만 머리에 짝 찬 느낌입니다.

특히 중국펀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 대략 지난 2007년 10월 이후 투자한 중국펀드라면 연 25~30%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을 것입니다. 한국펀드평가에서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기준으로 3개월간 평균 수익률이 24.96%였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가장 인기 있었던 중국 펀드가 지금에 와서 애물단지 취급 받는 것은 중국 주식시장의 급락 때문입니다.

## 중국증시 왜 급락하는가?

지금까지 중국 펀드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중국 시장의 큰 성장 잠재력과 미국 등 선진국 경기와의 이른바 디커플링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중국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본토 주식인 A시장과 비교하면 홍콩 H시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수준이라서 상승 잠재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중국 증시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급락하



게 된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 지난 1월 29일 중국 평안보험과 공상은행이 서브프라임모기지채권에 과다투자해서 위기에 몰리고 있는 벨기에 1위 보험회사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등 중국 금융회사들의 해외투자 성과가 부정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도 설 연휴 이후에 중국 정부 당국은 시장 유동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가로 지급준비율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다, 1월 폭설로 인한 필수 소비재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어 인플레이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 등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중국 경제 불안한 것만은 아닌 듯...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중국 금융회사들의 해외 투자가 그들의 영업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중국도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아울러 지난 해 4분기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실물 부문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주가의 가파른 회복세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분산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중국 펀드 환매는 신중해야...

최근의 급락 때문에 서둘러서 환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급락 분위기에 휩싸인다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펀드의 투자 기간 정도와 펀드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대응하여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펀드 투자기간이 6개월 이내 단기인 투자자 분들은 당분간 펀드를 보유하면서 펀드손실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과 2007년 2월에 급락 후 급등한 전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1년 이상 경과된 재간접투자신탁형인 경우에는 펀드를 분할 매도하여 수익의 일부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낮은 주가 수준에서 투자되었기 때문에 누적수익이 상당할 것이고, 아울러 재간접투자형이기 때문에 그 펀드 설정일에 결산이 됨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 매도하여 나온 자금은 당분간 MMF 등에 예치하여 놓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펀드 재투자를 고려해 봅니다. 세 번째, 지금이 중국펀드 신규투자 시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사들이라는 것처럼 펀드 투자도 주가가 떨어질 때 실행한다면 더 많은 좌수를 편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하지만, 목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거치형보다는 정기적립식이나 자유롭게 추가투자가 가능한 자유적립식으로 하심을 권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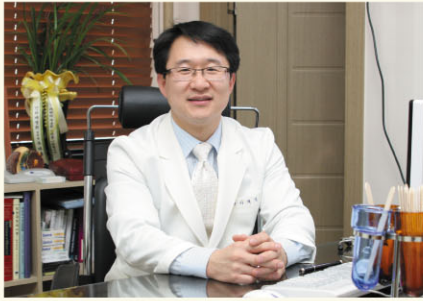
변동성 강한 시기의 주식시장에서 투자 위험 관리가 먼저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중국 단일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이머징마켓과 분산 투자하는 펀드 형태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릭스나 아시아소비재형 등 중국 시장에 20~35%, 기타 이머징 국가 시장에 분할 운용되는 펀드가 역시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인하대병원 하나은행 ☎032-890-1111)

●자료제공 : 목동하나은행 골드클럽 센터장 이희도



## 아름다운 도전, 변함없는 초심으로 푸른 미래를 꿈꾸며.....

논현사랑내과 \_ 이지영 원장

올해 2월 개원하고 힘찬 출발을 시작한 논현사랑내과를 찾았다. 한창 신도시가 형성되는 인천 논현지구의 주민들에게 이웃 같은 마음으로 의료 서비스를 실천하고 싶은 이지영 원장이다. 또 '융화'를 강조하는 이 원장은 같은 이웃인 만큼 수익만 밝히는 모습이 아니라 인술을 베푸는 의사가 되길 고집한다. 논현사랑내과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피부비만관리 등의 진료를 하고 있다. 위, 대장 내시경, 복부, 갑상선 초음파, X-레이 촬영이 가능하고 메조테라피, 카복시 테라피, 지방분해주사(HPL), iPL, 고주파, 중주파 치료기 등으로 피부비만 치료도 한다.

이 원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호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건강관련 무료강좌를 1주일에 한번씩 개최한다. 3월 14일 '갱년기 여성의 생활'이라는 주제가 첫 강좌이다. 그래서 이 원장은 가까워지고 융화될 수 있는 주민들의 삶 속에 일부가 되는 '논현사랑내과'를 꿈꾼다.

"내가, 또 우리 애가 아파보니까 하는 마음으로 보호자가 됐을 때의 느낌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 모습이 제가 바라는 의사의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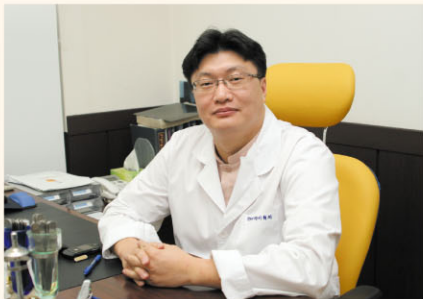
이렇게 이 원장이 맘껏 의료소신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함이 있는 것은 또 자신의 모교인 인하대병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개원 첫 날 위장장애로 찾으신 박영란 할머니를 잊을 수 없다. 첫 환자를 조바심 나게 기다리지 않고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 할머니를 대할 때마다 그날의 초심이 생각날 것이다.

신인의 자세로 도전한 논현사랑내과의 이지영 원장, 10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진료하는 게 목표라는 그에게서 푸른 미래가 느껴진다.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 032-433-9900

### Interview



## 모든 환자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섬김'의 철학

논현메디칼정형외과 \_ 이혁제 원장

어려운 말은 사용금지,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진료한다는 논현메디칼정형외과 이혁제 원장을 만났다. 지난해 11월 개원했음에도 이런 이 원장의 진료 때문인지 대기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재활전문, 척추, 신경통증, 관절, 요통 및 디스크 등의 진료와 수지접합의 외상수술을 하는 논현메디칼정형외과의 10여명 직원들은 늘 한결같은 친절로 환자를 대한다. 또 근육 위축, 신경손상 환자에게 사용되는 IMS(근육내 자극요법)는 이 원장이 직접 시술한다.

'섬김'이라는 말이 참 좋다는 이 원장은 환자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것이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뿐이라고 자신을 낮춘다.

입으로 알리는 홍보보다 오신 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 혹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환자에게 '예 알겠습니다' 하는 친절 교육의 강조로 먼 훗날을 바라보는 이 원장이다. 그렇게 풀어나가는 친절 중심의 진료서비스가 실력보다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또 자세한 설명, 문진만이 아니라 모든 환자들을 직접 만져보는 자상한 스타일이라 진료 시간이 다소 길다고 한 직원은 귀땀한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근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근력이 관절이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칙적인 걷기, 수영, 자전거 등의 운동을 권한다.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는 이웃 같은 동네 병원으로 기억되길 바라고 경영 능력이 된다면 수술전문 병원으로 키우고 싶은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는 이 원장이다.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 032-446-9700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의료원장, 병원장, 의과대학장 취임식



3월 14일 5대 인하중앙의료원장으로 이두익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4대 인하대병원장으로 박승림 정형외과 교수, 8대 의과대학장으로 손병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양호 인하학원 이사장, 홍승용 인하대학교 총장, 박창규 인천시의회 의장 등 내 외부인사가 참여하였다. 조양호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팀워크에 의한 전문화 특성화와 윤리경영을 강조하였고, 병원의 발전을 위해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제홍 병원장 퇴임식



2월 27일 3층 강당에서 인하대병원 제 3대 병원장이신 우제홍 병원장의 퇴임식이 거행되었다. 홍승용 인하대총장 이하 대내외 귀빈을 모시고 퇴임식을 가졌다. 우제홍 병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1967년)하고, 국립의료원 기획실장, 인천지역 암등록사업본부장, 인하대병원 진료부원장, 인하대 의과대학장, 인하대의무부총장, 인하대병원 의료원장 겸 병원장을 역임하였다.

4차원 사이버나이프 진료개시



3월 3일부터 본격 진료를 개시한 인하대병원 사이버나이프의 첫 환자는 척추종양환자

김OO씨였다. 2월 14일 인하대병원 지하 1층 방사선종양학과 내 사이버나이프센터(소장 신경외과 박현선 교수)에서 장비소개와 치료순서에 따른 치료장면 시연회를 가졌고, 3월 3일부터 진료 개시하였다.

최신형 1.5T MRI 가동식



1월 22일 지하 1층 영상의학과에서 최신형 1.5T MRI(GE사 SIGNA EXCITE HDx) 가동식을 가졌다. 기존의 MRI보다 데이터 처리속도, 영상저장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으며, 영상의 스캔과 획득, 영상재구성이 동시에 행하여 짐으로써 검사시간이 단축되었다. 해상도와 영상의 정밀도가 훨씬 향상된 최첨단의 기능들을 장착함으로써 다양한 영상기법이 적용되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지역 암 등록자료 국제공인 취득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암 등록본부(본부장: 우제홍 - 인하대병원장)는 인천지역의 1998



년~2002년의 암 등록자료를 국제암연구소(IARC)에 제출, 2007년 12월 C15 제9판을 통해 국제공인을 받았다. 이는 암 발생율의 품질과 정확성을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8회 학술심포지엄도 병행 실시하여 암 등록자료의 정보를 공유했다.

인천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인천시립합창단(예술감독 윤학원)은 2월 27일 인하대병원 1층 로비에서 음악회를 개최,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윤 감독은 "앞으로도 음악 문화를 접하기 힘든 병원, 고아원 등에 찾아가 다니며 많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홈커밍데이 개최 성료



3월 8일 인하대병원 강당에서 국내 최초로 암을 이긴 150여 명이 암 투병환자에게 완치 경험담을 털어놓은 '홈 커밍데이' 행사가 열렸다. 병원이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백혈병 등 여러 유형의 암을 극복한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암 투병환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 인사동정

### | 임원인사 |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인하중앙의료원장		
교수		이두익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교수		박승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교수		손병관

### | 보직임명 및 확인 |

####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비인후과	김영모
대외협력실장		김정희
감사팀장		고종욱
기획조정팀장		이태현
인사교육팀장		김용선
자재팀장		이한택
재무팀장		변종범
전산정보팀장		이연숙

#### 부속병원

제1진료부원장	외과	홍기천
제2진료부원장 겸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원장		
	응급의학과	김준식
적정진료실장	외과	조영업
교육수련부장	류마티스내과	박 원
행정관리실장 겸 총무팀장		김종래
내과 과장	순환기내과	박금수
소화기내과 분과장		이돈행
순환기내과 분과장		권 준
호흡기내과 분과장		류정선
내분비내과 분과장		김용성
신장내과 분과장		김문재
혈액종양내과 분과장		김철수
알레르기내과 분과장		김철우
감염내과 분과장		이진수
류마티스내과 분과장		박 원
외과 과장		안승익
흉부외과 과장		백완기
신경외과 과장		박현선
정형외과 과장		김려섭

성형외과 과장	황 건	
비뇨기과 과장	성도환	
소아청소년과 과장	전용훈	
산부인과 과장	이우영	
피부과 과장	최광성	
안과 과장	문연성	
이비인후과 과장	장태영	
정신과 과장	배재남	
신경과 과장	최성해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한정욱	
영상의학과 과장	임명관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김우철	
핵의학과 과장	현인영	
응급의학과 과장	한승백	
재활의학과 과장	김창환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최종원	
병리과 과장	한지영	
가정의학과 과장	최지호	
산업의학과 과장	임종한	
치과 과장	김일규	
사이버나이프 센터소장	신경외과	박현선
감염관리실장	감염내과	정문현
진료협력실장	재활의학과	정한영
원무보험팀장		채혁기
물류팀장		황우경
노사협력팀장		정해만
시설관리팀장		전현석
의용공학팀장		이강희
진료지원팀장		최규철
적정진료실 적정진료팀장		이도익
적정진료실 평가인증팀장		문미혜

### | 신규임용 |

외과	조교수	최윤미
성형외과	조교수	권순성
영상의학과	조교수	편해욱
혈액종양내과	전임강사	이현규
영상의학과	전임강사	김윤정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박정연
소아청소년과	"	강성길
안과	"	강성모
방사선종양학과	"	김현정

소화기내과	임상연구의	김철현, 박현주
	"	손동욱
건강증진센터	"	손동욱
순환기내과	"	김수현, 최웅길
내분비내과	"	오윤주
신장내과	"	이승희
혈액종양내과	"	임주한
류마티스내과	"	임미진
외과	"	박정미, 최소영
정형외과	"	강석봉, 이 문
흉부외과	"	조정수
성형외과	"	황진희
소아청소년과	"	안소현
정신과	"	선우영경
피부과	"	이현수
이비인후과	"	김보목, 한길수
	"	양태용
마취통증의학과	"	고희창
영상의학과	"	이윤미
산업의학과	"	김환철
응급의학과	"	김강호, 김 훈

### | 신규채용 |

원무보험팀	정석두
특수간호팀	곽미영, 김아름, 최성진, 신선영
	김은정, 김수경, 최윤정
병동간호팀	이신애, 서용선, 정지혜, 장성경, 김영희
외래간호팀	송숙영, 김선애
약제팀	강신영, 강혜진, 하나영

### | 전근 |

적정진료실	심학수
기획홍보팀	김건균
물류팀	홍사령
혈액종양내과	최종규
산부인과	김순옥, 김민경
병동간호팀	임선희, 유혜선

### | 이달의 친절직원 |

2월	병동간호팀(서16병동)	유영근
3월	특수간호팀(7병동)	강혜원

## \* 인하중앙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885)
- ▶ 무통장 입금 : 거래은행 예금주 : 인하대병원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08년 2월 29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20명	446,462,848원	302,376,335원	



## | 건강교실 안내 |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li> <li>- 참가비 7만원</li> </ul>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li> <li>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li> <li>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li> </ul>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방암 환자의 식이</li> <li>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파부종 관리</li> <li>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li> <li>-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li> </ul>	3월 10일(월) 4월 14일(월) 오후 3시~4시 30분	3층 1 세미나실	(032)890-2560



## | 무료공개 강좌 |

강좌 일자	강좌 내용	진료과목	담당교수
4월 29일(화) 오후 3시	탈모질환의 최신 치료	피부과	최광성
5월 27일(화) 오후 3시	'발달이 늦은 아이'의 조기진단과 치료	재활의학과	김명옥
6월 24일(화) 오후 3시	청소년 발달 및 건강검진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 강의일시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후 15:00 ~ 16:00 • 장소 : 병원 3층 대강당 • 문의처 : 교육수련부(☎032-890-2640~2) • 인터넷 홈페이지(www.inha.com)

### ♣ 원 | 고 | 모 | 집 ♣

원보 인하대병원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진지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 E-mail : inhapr@inha.com

■ 보낼 곳 : 기획홍보팀

☎ 032-890-2602

### 편집위원

김명석, 이지현 | 기획홍보팀  
유진희 | 간호부  
강순자 | 원무보협팀

### 독 자 업 서

보 내 는 사 람

\_\_\_\_\_

\_\_\_\_\_

\_\_\_\_\_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07. 07. 09 ~ 2008. 07. 08

인천 우체국  
제40050호

받는 사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기획홍보팀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 퀴즈 퀴즈 제42회

※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에  
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  
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1 청신경 초종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청신경 초종은 뇌신경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 ② 90%의 환자가 청력감소를 주원인으로 병원을 찾는다.
- ③ 치료방법으로는 수술로 적출, 사이버나이프 같은 방사선수술, 지켜보기가 있다.
- ④ 방사선 수술의 장점 중 하나는 머리를 열지 않고 수술하므로 입원이 필요 없고 치료 후 1~2일 뒤에는 일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2 춘곤증을 이겨낼 수 있는 음식섭취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봄나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 ②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 ③ 아침을 꼭 먹고, 하루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 ④ 커피 및 청량음료의 섭취를 줄인다.

### 3 인하대병원 임상연구센터 송순욱 교수팀은 사람과 동물의 골수로부터 '○○○○○'이라 명명한 분리방법을 이용하여 성체 줄기세포들을 기존의 방법들과는 차별된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Stem Cells and Development' 라는 줄기세포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되어 2008년 6월호에 발표될 예정이다.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Quiz 정답

1

2

3

### ♣ 제41회 QUIZ 정답

- ① 2
- ② 4
- ③ 소화기센터

### ♣ 당첨을 축하합니다

- 김미선 동8병동
- 김서영 재활의학과
- 한경미 노사협력팀
- 조성옥 인천시 남구 도화동
- 김인구 인천시 서구 검암동





Table with 4 main columns: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The table is divided into multiple sections for various medical departments, each with a list of faculty members and their specialties, and their respective clinic hours.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 토요일 오전진료는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진자는 응급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yberknife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 무혈**  
**‘로봇 사이버나이프’**



##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란?

유럽,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실시간 종양 추적 초정밀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 치료 가능한 질환

#### | 뇌종양 |

악성뇌종양 : 전이성 뇌종양, 다발성 뇌종양  
 양성뇌종양 : 청신경초종, 뇌수막종, 두개인두종, 뇌하수체종

#### | 체부종양 |

전립선암, 폐암, 간암, 췌장암, 소화기암, 유방암, 부인과암(자궁암, 난소암), 비뇨기계암 등 척추종양, 전이성 척추암, 원발성 척추암, 수막종, 척추신경초종

#### | 두경부종양 |

갑상선암, 안와종양, 상악동암, 비 인강암, 뇌기저부 종양

#### | 뇌신경, 혈관질환 |

뇌동맥맥기형, 해면혈관종, 삼차신경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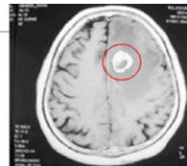
#### | 정신과질환 |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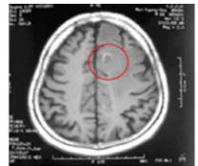
이외에 재발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다발성 종양, 기존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없는 종양 등 다양

#### 뇌종양

뇌실질 정상 조직은 피하면서 종양에만 정밀 방사선 치료



▲ 치료전



▲ 치료후

#### 췌장암

췌장은 주변에 피해야할 중요한 기관들이 많으므로 로봇 수술이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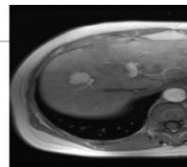
▲ 치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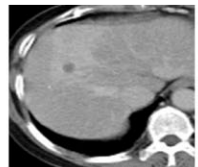
▲ 치료후

#### 간암

간기능 보존 치료



▲ 치료전



▲ 치료후